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成 조사 연구

- 간성과 강릉을 중심으로 -

홍영호*

1. 머리말
2. 東界 지역 成의 문헌 분석
3. 東界 지역 成 유적 조사 연구
4. 東界 지역 成의 입지와 성격
5. 맺음말

1. 머리말

고려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은 5道 兩界로 구분되며, 행정적인 성격의 5도와 달리 양계는 군사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다. 양계는 北界와

* 문학박사, 강원 현남중 역사교사

대표논저 : 「양양 후포매리 신라 산성의 고찰」, 『先史와 古代』30, 韓國古代學會, 2009; 「『삼국사기』지리지 溟州 영현 棟隄縣의 위치 비정과 의미」, 『韓國史學報』38, 高麗史學會, 2010; 「『三國史記』所載 泥河의 위치 비정」, 『韓國史研究』150, 韓國史研究會, 2010; 「신라의 동해안 연안항해와 하슬라-강릉 경포호 강문동 신라토성을 중심으로-」, 『白山學報』95, 白山學會, 2013; 「산성과 고분으로 본 신라의 하슬라 진출과 경영」, 『新羅史學報』33, 新羅史學會, 2015; 『新羅의 何瑟羅 經營 研究』, 고려대 문학박사학위논문, 2012.

東界를 지칭하는데, 그만큼 두 지역이 거란족, 여진족 등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필요성이 컸다고 하겠다. 그러한 까닭에 사료에는 고려시대 국방유적과 관련하여 양계 지역에서 戍가 많이 보이며, 동해안인 동계 지역 역시 『고려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戍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戍는 주둔군의 전방 초소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는 문헌사적인 연구 성과가 있다.¹⁾ 즉, 전방 일선의 州鎮(諸城)들이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戍를 설치하였으며, 결국 戍는 적군의 동태를 탐지하여 그 정보를 본진에 보고하고, 적의 소규모 침입을 직접 격퇴하기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진에서 교대로 파견된 병력이 상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

그런데 강원도 동해안의 경우 대학 박물관이나 학술기관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고고학적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戍’라고 이름을 붙인 유적이 한 곳도 없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된 대규모 학술조사 사업의 양적, 질적 성과로 보건대 의아스럽기조차 하다. 현재의 학술조사 성과로는 강원도 東界 지역에 위치하였던 戍의 역사적 현장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東界 지역에 있는 ‘戍’의 실체부터 규명해야 하고,³⁾ 그 위치와 입지를 찾아보는

1) 고려 전기 戍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성과는 사실상 없고, 다음 논문에서 州鎮軍을 다루면서 소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기백, 「고려 양계의 주진군」,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68.

趙仁成, 「高麗 兩界 州鎮의 防戍軍과 州鎮軍」, 『高麗光宗研究』, 일조각, 1981.

宋容德, 「高麗前期 國境地域의 州鎮城編制」, 『韓國史論』 5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5.

권영국, 「고려전기 동북면과 동해안의 방어체제」, 『승실사학』 30, 승실사학회, 2013. 그러나 이들 논문들은 戍 유적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것이 아니다.

2) 이기백, 「고려 양계의 주진군」,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68, 261~263쪽.

3) 주진군에 속한 전방초소의 성격인 戍에 대하여 적군의 동정을 살피려고 성 위에 만든 누각인 戍樓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孫永植, 「城郭用語」, 『韓國城郭의 研究』, 문화재관리국, 1987, 319쪽; 이기백·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현장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의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戍’로 이름을 붙인 유적이 없는 까닭에 현재로서는 사료나 지리지는 물론이고 지명지와 구비전승 등의 문헌자료를 최대한 검토·분석하여 ‘戍’에 관한 단서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즉, 문헌 사료에 나타난 戍들에 대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자료 속에서 각각의 戍에 대한 단서를 찾아 戍 유적을 추정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작업을 위하여 각종 문헌 자료에 나타난 ‘戍’ 관련 기사를 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古地圖와 지역 출신의 個人 文集까지도 검토하여 戍에 관한 단서를 찾도록 하겠다.

다음으로는 문헌 조사를 통해 ‘戍’로 추정되는 유적들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역사적 현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戍의 입지와 규모, 현상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과 사진으로 남겨 학술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유적들의 공통점을 찾고 출토 유물들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戍의 위치를 비정하고, 입지와 성격 등을 확인하며, 戍의 역사적 전개와 변화까지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東界 지역 戍의 역사적 현장을 확인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고,⁴⁾ 이를 통해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군사방어체제를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⁵⁾

2011, 391쪽)가 있을 정도로 그 성격 파악이 혼란스러웠다.

4) 이 글은 東界 지역 戍에 대한 필자의 다음 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戍를 중심으로-」, 『博物館誌』 19,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2012, 49~72쪽.

홍영호, 「고성군 죽왕면 竹島(山)烽燧와 竹島戍에 대하여」, 『博物館誌』 21,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2014, 19~44쪽.

5) 이 글은 남·북한 간의 분단으로 북한 지역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려시대 兩界의 戍 현장을 처음 추적한다는 의의가 있다.

2. 東界 지역 戍의 문헌 분석

가. 『고려사』의 戍

고려시대 동해안의 戍는 역사적 사건의 기록 속에서 등장하거나, ‘○○戍’라고 명칭만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려사』에는 桐津戍, 臨遠戍가 강원도 삼척에 있으며, 동여진의 침입을 받았고, 寧波戍, 泉井戍, 鐵垣戍, 壓戎戍, 禾登戍 등이 보이며, 『신증동국여지승람』 강릉대도호부에는 5개의 戍가 명칭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戍의 정확한 위치가 전해지지 않아 그 입지 조건을 알 수 없고, 그로 인하여 戍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여기에서는 『고려사』를 살펴봄으로써 동계 지역 ‘戍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확보해 보겠다.

사료에서 戍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나타난다.

A-1 靖宗2년(1036) 2월 辛未 東蕃賊船 寇三陟縣 桐津戍 擄略人民 守將 設伏 草莽伺賊 還鼓譟掩擊 俘斬四十餘級 (『高麗史』 卷六 世家 卷第六)

A-2 靖宗8년(1042) 6월 丙戌 都兵馬使奏 東路烈山縣 寧波戍 隊正簡弘 與賊 鬪 衆寡不敵 矢盡力窮而死 請追加職賞 從之 (『高麗史』 卷六 世家 卷第六)

A-3 文宗4년(1050) 6월 戊辰 東蕃海賊 寇烈山縣 寧波戍 掠男女十八人 (『高麗史』 卷七 世家 卷第七)

A-4 文宗6년(1052) 6월 己卯 東女真高之間等航海, 來攻三陟縣 臨遠戍. 守將 河周呂率兵出城, 徇于軍曰, “彼衆我寡, 若人自爲戰, 不愛其身, 則戰必勝矣.” 遂擁干挺刃而進. 適有安邊都護判官 金崇鼎巡所管諸戍, 行至近境, 賊聞其角聲, 謂援兵徑至, 遂驚亂, 周呂軍, 乘勝擊之, 俘斬十餘級, 賊奔潰. (『高麗史』 卷七 世家 卷第七)

위 기사에 보이는 동진수(A-1), 영파수(A-2·3), 임원수(A-4)는 각각 지금의 삼척, 간성(열산현), 삼척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온다. 동해안 지역의 북쪽(북한)에서도 다음과 같이 戍가 보인다.

B-1 文宗 元年(1047) 1월 制, 霜陰鶴浦兩縣沿海處, 設置軍戍, 以扼蕃賊之衝.
(『高麗史』 卷八十二 志 卷第三十六 兵二 鎮戍)

B-2 文宗 3年(1049) 6월 壬申 東北路兵馬使奏, “雲岳縣 折衝軍隊正 惟古等十一人, 夜巡行到泉井戍, 有蕃賊四十餘人, 突入屯中, 軍卒皆奔匿, 惟古挺身奪擊, 賊遂潰走, 請量功授職.”(『高麗史』 卷七 世家 卷第七)

B-3 翼谷縣 校尉一, 左軍一隊, 寧塞一隊. 鐵垣戍. 右軍寧塞各一隊. 凝川貢所, 左軍·寧塞各一隊, 行軍四十六.

鶴浦縣 別將一, 校尉二, 隊正四, 抄軍二隊, 左右軍各一隊, 寧塞一隊. 壓戎戍. 校尉一 隊正二, 左右軍各一隊, 寧塞七人.

霜陰縣, 校尉一, 隊正二, 左右軍各一隊, 寧塞一隊. 禾登戍. 左右軍各一隊, 寧塞五人. 福寧鄉, 校尉一, 隊正二, 左右軍寧塞各一隊. (『高麗史』 卷八十三 志 卷第三十七 兵三 州縣軍 東界)

위의 B-1 기사의 학포현과 상음현은 안변도호부 소속인데,⁶⁾ 연해처 요충지에 번적을 막기 위하여 戍를 설치하였음을 알려준다.⁷⁾ 그리고 B-1 기사의 학포와 상음현의 軍戍는 B-3 기사로 볼 때 압용수와 화등수로 각각 추정된다. B-2 기사의 천정수는 북강원도 동해안의 통천 지역으로 『大東地志』에는 지금의 수곶(戍串)으로 비정하고 있다.⁸⁾ B-3 기사의 철원수와 압용수는 안변 지역에 위치하며, 『大東地志』에는 압용수가 지금의 압용곶(壓戎串)으로 칭한

6)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9권 안변도호부, 건치연혁 및 고적조 참조.

7) 戍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태조 11년의 기사(『高麗史』 卷82 志 卷第36 兵2, 태조 11년(928) 4월 城運州玉山, 置戍軍)도 있으나 본고와 직접 관련될 것 같지 않아 사료로 채택·활용하지는 않는다.

8) 金正浩, 『大東地志』, 通川 城池條, 泉井戍, 南五十三里今戍串.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5권 통천군 봉수조에 수곶봉수가 남쪽으로 53리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김정호가 언급한 천정수와 동일한 거리이다. 수와 봉수의 대응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다고 기록하였다.⁹⁾

이들 A와 B 기사로 보아, 成는 東女眞(東蕃)의 침입과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보면 동여진(동번)은 1005년(穆宗 8월)에 登州(현재의 안변)를 침입하기 시작하여 顯宗~德宗~肅宗 연간에 이르기까지 약 1세기 동안 고려의 동해안 지역에 침입하여 약탈을 하였다. 이들은 소규모 海賊에 불과하나 경주를 비롯한 영덕, 영일, 장기 등지의 경상도 지역은 물론이고, 극히 드물게는 울릉도와 일본에까지 침입하고 있다. 동계 지역인 지금의 강원도 동해안이나 함경남도의 동해안 일대는 당연히 더 많은 침입을 받았다. 이에 고려 조정은 연해 고을들에 築城을 하였고, 鎭溟都部署를 설치하여 수군력을 강화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¹⁰⁾

한편 成는 北界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다. 특히 북계 지역의 사료는 成의 성격과 규모를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다음과 같다.

C-1 宣宗8년(1091) 6월 甲辰 都兵馬使奏, “往年, 蕃賊寇昌州, 兵馬錄事安先俊等領卒, 出屯德寧成, 遣郎將高猛等, 追捕奮擊, 賊大潰, 校尉崇儉隊正邊鶴等突入賊中, 士卒增氣, 俘斬有功, 乞加職賞, 以勸將來.” 制可.(『高麗史』卷十 世家 卷第十)

C-2 十年 命金令器王寵之, 城長州定州, 及元興鎭. 長州城, 五百七十五間, 成六所, 曰靜北高嶺掃狴掃蕃壓川定遠. 定州城, 八百九間, 成五所, 曰防戎押

9) 金正浩, 『大東地志』, 安邊 鎭堡條, 鶴浦縣押戎成, 今稱壓戎串, … 鐵垣成, 在派川社海口歙谷界有小石城, 香燈成, 東四十里霜陰縣 … .

10) 동여진의 침입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가 된다.

이창섭,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 『韓國史學報』30, 高麗史學會, 2008, 77~109쪽.

한성주, 「고려시대 東女眞·東眞兵의 강원지역 침입에 대하여-東女眞 海賊의 침입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0,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221~253쪽.

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사학연구』107, 한국사학회, 2012, 45~88쪽.

胡弘化·大化·安陸. 元興鎮城, 六百八十三間, 戍四所, 日來降壓虜海門·道安.
(『高麗史』卷八十二 志 卷第三十六 兵二 城堡)

C-3 七年 崔冲城·寧遠·平虜二鎮, 寧遠城七百五十九間, 堡子八區內, 金剛戍四十二間, 宣威戍六十一間, 宣德戍五十間, 長平戍五十三間, 鼎岑戍三十八間, 鎮河戍四十二間, 鐵塘戍六十一間, 定安戍三十二間, 關城一萬一千七百間. 平虜城五百八十二間, 堡子六區內, 橋戍三十六間, 鎮兇戍三十間, 直岑戍四十一間, 降魔戍五十間, 折衝戍三十間, 靜戎戍三十間, 關城一萬四千四百九十五間. (『高麗史』卷八十二 志 卷第三十六 兵二 城堡)

위의 C-1·2·3 기사는 戍가 성의 (전방) 보루[堡子] 기능을 가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戍는 상급지휘체계의 통제를 받았는데, A-4 기사의 삼척 임원수는 안변도호판관 김승정이 所管諸戍를 순시한 곳이므로 그의 지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¹¹⁾ 또한 이들 기사를 통해 戍의 성격과 부대의 규모도 파악할 수 있다. B-3 기사에 보이는 학포현 소속의 압응수는 校尉가 지휘하고 학포현의 별장 지휘체계에 속함을 알 수 있으며, 철원수나 화등수 등에도 隊正 정도의 지휘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A-2 기사의 隊正도 영파수의 지휘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戍’의 지휘관은 校尉나 隊正 정도로 파악되는데, 고려의 군사편제에서는 최하위 단위 부대의 말단 지휘관에 해당한다.¹²⁾ 城柵의

11) 고려시대에 국경지대인 北界(西北界)와 東界(東北界)에는 각기 安北都護府와 安邊都護府 밑에 州·鎮 중심의 행정조직이 짜여져 있었다(朴龍雲,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85, 299쪽).

12) 고려시대에 무반직은 정8품 산원 이상이 관인의 범주에 들었고 교위·대정은 관인과 군인의 사이에 위치한 계층이었다. … 중략 … 그리고 장군에서 교위까지는 每品の 正品階에 두었고, 대정은 품외로 하였다.(李鎭漢, 『高麗時代 武班職의 地位와 構成』, 『軍史』37, 國防軍史研究所, 1998, 53~54쪽). 별장과 교위 및 대정을 향리 중에서 선발하여 충원하는 규정도 있다(『고려사』卷八十一 志 卷第三十五 兵一 兵制, 문종 23년(1069) 3월 二十三年三月 判, “諸州一品別將, 則以副戶長以上, 校尉, 則以兵·倉正·戶正·食祿正·公須正, 隊正, 則以副兵倉正, 副戶正·諸壇正, 試選弓科而差充”).

고려시대 군대 편제에서 산술적으로 25명의 군인 가운데 1명이 대정이 되고(李鎭漢, 위 논문, 1998, 47쪽 및 48쪽 각주 64번 참조), 단위부대인 伍는 50명으로

규모도 州鎭에 비하여 수십 칸에 불과하여 최소 단위 부대의 군사들이 주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문헌 사료를 통해 東界 지역 ‘戍’의 실체에 대하여 두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규모 자체가 전방 초소 및 보루의 성격이라는 점이다. 戍의 지휘 편제와 배치된 부대의 규모로 보건대 기본적으로 소규모 부대가 주둔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해안 지역의 경우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적(동여진)을 감시·조망·통제하는 목적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적의 침입 시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그들을 대피시키며, 본대에 연락하여 지원군을 부르는 기능도 당연히 수행하였을 것이다. 戍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관방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나. 지리지의 戍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戍’ 유적을 찾으려면 ‘戍’가 관방유적이므로 관방유적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주요 관찬 지리지(이하 ‘지리지’로 약칭함)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기록된 城池 및 關防조 등을 검토해보면, 강원도의 경우 강릉대호부에서 ‘戍’가 5곳 나오는데, 城郭이나 城池가 아닌 이미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古蹟’조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표 1〉 지리지 수록 강릉 지역의 ‘戍’

구분	항목	내 용	비고
『신증동국여지승람』	古蹟	寧平戍 海令戍 化城戍 沙火戍 鐵甕戍	
『여지도서』	古跡	寧平戍 海寧戍 化城戍 沙火戍 鐵甕戍	

조직되었으며 그의 장은 校尉(伍尉 또는 尉: 正9品)이다(朴龍雲, 『高麗時代史(上)』, 一志社, 1985, 287쪽).

陳元英, 「高麗前期 校尉·隊正에 관한 일고찰」, 『史學志』27, 檀國大 史學會, 1994, 47~79쪽.

앞의 <표 1>과 같이 지리지에는 강릉 지역에만 ‘戍’가 기록되었고, 강원도 다른 지역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기록도 상세하지 않고 거리 정도만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을 뿐이다.

… 寧平戍·海令戍(府 동쪽 10리에 있다)·化城戍·沙火戍(府 북쪽 20리에 있다)·鐵瓮戍.¹³⁾

이와 같이 강릉 지역의 戍는 위치가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므로 그 입지를 알 수 없다. 그 때문에 이들 戍가 조선시대 강릉대호부 관할에 속하는 내륙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동해안 바닷가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 지리지의 강릉 烽燧조에서 沙火山烽燧와 海靈山烽燧가 보이는데, 강릉 지역 戍의 명칭인 沙火戍 및 海令戍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봉수조를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에 따라 주요 지리지 별로 정리해 보면, 간성군의 죽도산봉수, 정양수봉수, 수산봉수도 戍와 관련되는 명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세종실록지리지』 간성군의 봉수조에서 正陽戍와 戍山이 있는 것이다<표 2>.

<표 2> 지리지 수록 강릉·간성 지역 봉수와 추정 ‘戍’

구분	항목	강릉	간성
『세종실록지리지』	봉수	於乙達, 吾斤, 所伊洞, 沙火, 注乙文	竹島山, 正陽戍, 戍山
『신증동국여지승람』	봉수	注文山烽燧, 沙火山烽燧, 所同山烽燧, 海靈山烽燧, 吾斤山烽燧, 於達山烽燧	竹島烽燧, 正陽山烽燧, 戍山烽燧
『여지도서』	봉수	注文山烽燧, 沙火山烽燧, 所同山烽燧, 海靈山烽燧, 吾斤山烽燧, 於達山烽燧-并今廢有遺址	古烽燧: 竹島烽燧, 正陽山烽燧, 戍山烽燧-新羅時所設今廢

위의 <표 2>와 같이 지리지의 봉수조에서 극히 적지만 戍라는 명칭이 사용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신증동국여지승람』

13)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4권, 강릉대도호부 고적조.

강릉의 봉수조에 보이는 ‘海靈山烽燧’와 ‘沙火山烽燧’도 古蹟조에 보이는 ‘海令戍’ 및 ‘沙火戍’와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戍의 입지와 실체를 밝히려면 戍와 烽燧와의 관계부터 분석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다. 고지도의 戍

戍의 위치와 입지 조건을 찾기 위하여 古地圖를 살펴보았을 때, 「東輿圖」에서 위치가 표기된 戍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東輿圖」에는 간성 지도에 戍山이 표기되어 있어 戍山烽燧로 추정되는데, 바로 그 옆에 古寧波戍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주목된다. 또한 正陽山도 바닷가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正陽戍烽燧(正陽山烽燧)로 추정된다. 고성 지도에는 靈津串이 표기되어 있어 靈津山烽燧로 추정되고, 高城浦와 강 하구를 두고 마주보는 위치에 浦口山이 표기되어 있어 浦口山烽燧로 추정된다. 歙谷 지도에는 강 하구의 곳에 鐵垣古戍가 표기되어 있어 鐵垣戍로 추정되고, 안면에는 鶴湖(鶴浦)를 둘러싼 壓戎串이 古戍로 함께 표기되어 있어 壓戎戍로 추정되며, 香灯古戍가 바닷가에 표기되어 있는데 禾登戍로 추정된다.¹⁴⁾ 그 밖에 北靑 지도에 장진포(장진호)가 바닷가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長津浦戍¹⁵⁾로 추정된다.〈지도 6~9〉

이와 같이 「東輿圖」로 보건대 戍들이 모두 바닷가 산이나 바닷가의 곳에 위치하고, 烽燧와 戍가 서로 일치하는 곳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간성의 戍山烽燧는 사료에 보이는 (古)寧波戍에

14) 香灯古戍는 香燈戍로 볼 수 있다. 燈과 灯의 뜻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B-3 기사에 상음현의 禾登戍도 안면도호부 소속이고, 발음도 같으므로 향등수로 추정된다.

15) 장진포수는 本府의 船卒들이 防守하고 있어 수군 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9, 北靑都護府 古蹟條, 長津浦 在府東四十七里 本府船卒防守今廢. 『大東地志』 北靑 營衙條 長津浦戍, 南四十七里舊以本府船卒防守.

해당하고, 북청의 長津浦戍를 비롯하여 흡곡의 鐵垣戍 및 안변의 壓戎戍와 香灯戍는 東界에 편제된 戍이므로 수의 입지와 기능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다만 「東輿圖」¹⁶⁾가 조선시대 말기에 만들어졌으므로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¹⁷⁾ 지도의 표기 사항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여도」의 검증과 관련하여 1872년에 간행된 간성군 지방도가 좋은 참고가 된다. 이古지도에는 간성군의 봉수 2곳이 육지의 산(정양산과 죽도산)에 ‘烽臺’라고 표기되어 있다<지도 10>.¹⁸⁾ 특히 육지의 竹島山에 봉대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죽도(산)봉수가 육지에 있었기 때문에 전승되어 그려졌다고 볼 수 있겠다. 후술하겠지만 이 지도는 죽도(산)봉수지가 죽도섬(바위섬)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의의가 매우 크다. 나아가 이 지도는 죽도산봉수를 바닷가 산에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竹島戍였을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¹⁹⁾

16) 「東輿圖」는 조선 철종 연간에 제작된 작자 미상의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 折帖裝) 전국 지도로 채색필사본이다. 「대동여지도」와 유사하여 金正浩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고본(稿本: 처음 쓴 내용의 책) 또는 「대동여지도」에 자료를 보충한 필사본일 가능성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김정호는 고려시대 사료에 보이는 戍에 대해 일부 戍를 위치 비정하여 『대동지지』의 각 지역에 기입하였다. 반면 삼척의 경우 桐津戍, 臨遠戍가 『고려사』에 나오고, 주요 지리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동지지』에는 두 戍를 기록만 하고 구체적인 위치 비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戍의 위치가 설명되어 있는 곳은 당시까지의 자료를 동원·분석하여 그가 위치를 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정호의 戍에 대한 위치 비정은 통일신라시대의 ‘今未詳’ 지명에 대한 위치 비정처럼 논증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의 비정이 정확하다고 믿을 필요도 없다. 김정호의 위치 비정도 잘못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18) 서울대 규장각(편), 『조선후기 지방지도』(강원도·함경도편), 2000, 杆城郡, “古烽臺距邑二十里南應襄陽德山山名竹島山.”(이 지도는 1872년 지도로 보고 있으며, 덕산봉수는 지금의 속초 외용치 봉수이다).

19) 홍영호, 「고성군 죽왕면 竹島(山)烽臺와 竹島戍에 대하여」, 『博物館誌』 21, 江原大學校 中央博物館, 2014, 19~44쪽.

따라서 고지도를 통해 볼 때 戌의 위치와 입지는 바닷가 연변 산의 봉우리나 곳에 위치하였고, 바다를 포함하여 주위를 조망하기에 아주 좋은 지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고지도의烽燧와 추정 戌

고지도	烽燧(추정 戌)
「東輿圖」	戌山烽燧(古寧波戌), 正陽山烽燧(추정 正陽戌), 鐵垣古戍(鐵垣戌), 壓戎串(壓戎戌), 香灯古戍(추정 禾登戌), (추정 長津浦戌),
「간성군 지방도」	正陽山烽燧(추정 正陽戌), 竹島山烽燧(추정 竹島戌)

3. 東界 지역 戌 유적 조사 연구

가. 간성 지역의 戌 유적

앞에서 戌가 봉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를 확인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戌의 현장 사례를 찾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 때 가장 주목되는 지역이 지금의 고성군, 즉 옛 간성군 지역이다. 왜냐하면 지리지와 고지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전기의 봉수지 명칭에서 戌의 성격이 간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성 지역의烽燧부터 조사하여 고려시대 東界 지역에 분포한 戌의 입지와 성격을 확인하는 시도를 하겠다.

간성 지역의 봉수 3곳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죽도(산)봉수, 정양산(수)봉수, 수산봉수가 분포한다. 이 가운데 『한국지명총람』에는 마차진리에 있는 봉수가 정양산봉수와 죽도봉수로 연결된다고 언급하였다.²⁰⁾ 실제 마차진리 봉수가 戌山烽燧라고 채록된 바

2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60쪽.

있다.²¹⁾ 이로 보아 마차진리봉수는 수산봉수로 볼 수 있다. 또한 正陽山烽燧도 고성군 문화원에서 간행한 지명유래지에는 반암리의 정양산(봉수봉)에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²²⁾ 그러므로 수산봉수와 정양산봉수는 그 위치가 확인되었다.

다만 죽도(산)봉수는 논의가 필요하다. 竹島山烽燧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죽도산봉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죽도봉수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竹島를 설명하면서 이 섬(필자: 바위섬)에 병사들이 머물렀던 군사시설[營舍古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²³⁾ 그래서인지 죽도섬(바위섬)에서 봉수와 관련된 기록이나 전설이 채록되지 않으나 죽도섬(바위섬)을 죽도산봉수로 생각하고,²⁴⁾ 남쪽으로 양양 덕산봉수(현재 속초 대포항

봉화-봉(烽火峰)[봉우터, 봉으뜸] 【산】 마차진 북서쪽에 있는 산. 높이 100m. 이 조 때 봉수대를 두어서, 북쪽으로 정양산(正陽山), 남쪽으로 죽도(竹島)에 응했음. (필자: 봉수의 원래 순서는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마차진-정양산-죽도이며, 책의 설명이 잘못되었다).

- 21) 「고성 마차진리 봉수지, 소재지: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봉수봉.
위치 및 현상: 대진에서 7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명파리로 넘어가는 쭉고개의 우측(동편) 해발 133m 봉화봉 정상에 위치한다. 해안에 면해 있고 해발고도가 주변 지역보다 높은 곳이어서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 중략 … 이 봉수지의 명칭을 술산봉수(戌山烽燧)라 밝히고 있고, 남쪽으로 13km 거리인 정양산봉수(正陽山烽燧-거진을 반암리소재)와 북쪽 고성군의 구장천(仇蔣遷) 봉수 사이에서 신호전달을 맡았음을 밝혀주고 있다. 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연변봉수지 가운데 비교적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주변에서 토기편과 와편들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수병들의 주거시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강원도편-』, 2000, 20쪽).
- 22) 정양산(正陽山) 봉수지: 반암리 마을의 서남방 800m 지점에 있는 해발 약 170m 높이의 정양산 정상에 있다. 해안에 면해 있으면서 남쪽과 북쪽 모두 트여 있어 봉수시설 입지로 알맞은 곳이라 생각되는 곳이다. … 하략 … (고성군문화원, 『지명유래지』, 1998, 152~153쪽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강원도편-』, 2000, 11~12쪽 참조).
- 23) 『신증동국여지승람』제45권, 간성군, 산천조, 竹島 在郡南二十里 周二里許 島上有營舍古址 梧桐箭竹滿其上.
- 24) 지현병, 「고성군의 관방유적」,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 10책, 1995, 123~126쪽.

외옹치), 북쪽으로 정양산 봉수와 연결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명칭의 차이를 중시한다면 『세종실록지리지』를 편찬할 당시에는 바닷가 육지의 산인 죽도산에서 봉수를 담당하였다가,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에는 죽도섬(바위섬)에서 봉수를 담당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죽도를 설명하면서 ‘蜃舍古址’로 서술한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미 군사시설이 폐기된 마당에 봉화를 두었는지 의문이다. 사실 조선시대 봉수지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는데, 죽도(바위섬)에서 군사시설[蜃舍古址]만 채록되었고 봉수 내용이 없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실제 봉수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구나 죽도(섬)은 일종의 바위섬으로 규모가 매우 작아 사람이 거주할 만한 섬이 아니다. 바닷가에 가까이 붙어 있는 작은 바위섬을 옛 사람들이 산으로 인식했을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보면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죽도산봉수와 죽도봉수는 죽도섬(바위섬)으로 볼 수 없다. 다행히 1872년에 간행된 간성군 지방도에 烽臺가 육지의 산에 그려져 있고, 竹島山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지도 10>.25) 즉, 죽도(산)봉수는 죽도(섬)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죽도(산)봉수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현재 죽도(섬) 서남쪽 인근의 바닷가의 낮은 산에 삼포리 봉수지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 경향은 죽도(산)봉수를 죽도(섬)으로 보고 있어 삼포리 봉수지는 조선 초기·전기 고성군의 봉수 3곳(죽도-정양산-수산)과는 다른 별개의 봉수로 간주하고 있다.26) 그러나

金聖範·沈榮燮, 「軍事保護區域內 文化遺蹟 地表調査 概報-江原道 高城郡篇-」, 『文化財』30, 國立文化財研究所, 1997, 249쪽.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高城郡 軍事遺蹟-地表調査報告書-』, 遺蹟調査報告 第10輯, 2003, 179쪽.

25) 각주 18번 참조.

26) 김정현은 고성군의 봉수를 북쪽에서부터 ‘마차진리봉수-정양산봉수-죽도봉수-삼포리봉수지-봉포리봉수지’라고 하였다(金政賢, 「高麗時代 嶺東地域의 海防遺蹟

필자는 죽도(산)봉수지를 삼포리 봉수지로 보고 있다. 삼포리 봉수지에 대한 최초의 현장 기록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 烽燧址 竹旺面 筍浦里, 土木局所管.
筍浦里部落ノ東北約五十間ノ山頂ニ在リ約六間四方ノ石塚ノ外圍ニ土壘アリ不完全.²⁷⁾

위 기록에는 봉수지가 죽왕면 순포리에 있는데, 순포리는 현재 삼포리에 포함되고,²⁸⁾ 봉수 관련 지명도 삼포리 봉수지 남쪽에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지도 3>.

- 봉수-단(烽燧壇) 【산】 감인당 동쪽에 있는 산. 이조 때 봉수대가 있었음.²⁹⁾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와 『한국지명총람』의 채록 내용은 그 위치와 지명으로 보아 삼포리 봉수지가 죽도(산)봉수임을 시사하고

연구], 강원대 사학과 문학석사학위논문, 2011, 51쪽 지도2 영동지역의 봉수터 분포). 그가 '봉수지'라고 이름붙인 곳은 역사성을 찾지 못한 것이고, 나머지 세 곳은 연변봉수로 본 것이다. 그런데 죽도봉수를 바다의 바위섬(죽도섬)에 표시를 하였다. 오류가 계속되고 있다.

27)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 高城郡, 45번 烽燧址 竹旺面 筍浦里.

2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고성군, 52쪽 및 54쪽.

- 삼포-리(三浦里) 【리】 본래 간성군 죽도면(竹島面)의 지역인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포월(浦月), 황포(黃浦), 순포(筍浦)의 세 마을을 병합하여 삼포리(三浦里)라 하여 죽왕면에 편입됨.

행정구역명인 죽도면은 이곳 죽도의 이름을 따서 붙인 행정지명이다.

- 대-섬[죽도] 【섬】 오희리 동쪽에 있는 섬. 대가 많고 그 질이 좋아서 옛날에는 나라에 바쳐 활을 만들었으며, 이조 때 이 섬의 이름을 따서 죽도면(竹島面)이 되었다가,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죽왕면에 편입되었음.

2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고성군, 52쪽.

- 봉수-동(烽燧洞) 【마을】 → 봉숫개.
- 봉숫-개[봉수동] 【마을】 봉수단 밑에 있는 마을.

있다. 동해안에는 백두대간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동-서로 가로 지르는 산 능선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지형의 동쪽 끝지점(말단부)의 바닷가에 삼포리 봉수지가 위치하는 것이다. 봉수지는 바다의 바로 옆에 연한 낮은 산(해발 약 59m)³⁰⁾으로, 북쪽에는 송지호, 동북쪽으로 죽도와 동해안, 남쪽으로도 동해안을 조망할 수 있다.

삼포리 봉수지에 관한 최초의 조사 내용을 보면 3단의 석단과 이를 둘러싼 토루를 소개하고 있어 전형적인 연변봉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도판 7>. ³¹⁾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삼포리 봉수지에 대하여 통일신라시대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봉수대와 관련한 방형기단이 잘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³²⁾ 이 두 학술 기관은 동서로 바닷가까지 뻗은 산 능선에 위치한 삼포리 봉수지에 참호가 개설되어 있다고 서술하지 않았다.

30) 『文化遺蹟分布地圖-高城郡-』에는 삼포리봉수지가 삼포리 봉수동 산60-3 입 일대이며, 해발 약 59m로 서술하였다(江原文化財研究所, 『文化遺蹟分布地圖-高城郡-』, 2005, 216쪽, 연번: 207번).

31) 삼포리 봉수지의 현황에 대해서는 최초의 학술조사를 소개하여 당시의 봉수 현상을 파악해 보겠다.

「三浦里烽燧址,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봉수동

위치 및 현상: 삼포리봉수지는 속초-고성간 7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대한불교태고종 반야사 진입로로 진입하여 바로 우측 해발 약 59m 높이의 산 정상에 위치한다. … 중략 … 금번 조사 결과 석단은 3단으로 약 1.5m이고 주변으로 굴러 떨어진 돌들이 흩어져 있다. 봉수지의 주변으로 폭 3m의 토루를 만들었으며 토루의 안쪽에는 화강석을 섞어서 쌓았다. … 하략 …」(지현병, 『高城郡의 關防遺蹟』, 『高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10冊, 1995, 123~126쪽).

32) 이 조사는 삼포리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를 소개하면서 봉수지를 언급한 것이다(金聖範·沈榮燮, 「軍事保護區域內 文化遺蹟 地表調査 概報-江原道 高城郡篇-」, 『文化財』30, 國立文化財研究所, 1997, 249쪽).

봉수대에 방형기단이 잘 남아있고, 봉수단 지명이 있는 곳에서 반야사 뒤편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어 지금의 삼포리봉수지가 분명하다.

강원문화재연구소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견해를 받아들여 삼포리봉수를 통일신라시대의 봉수단으로 추정하였다(江原文化財研究所, 『文化遺蹟分布地圖-高城郡-』, 2005, 216쪽).

그 후, 육사박물관의 조사에서 봉수지에 인공시설물이 설치되었다고 언급하고, 사진에서도 참호가 보이므로 어느 시기엔가 참호가 개설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³³⁾

필자 역시 최근 삼포리 봉수지를 답사한 결과, 죽도(바위섬) 서남쪽 인근 육지의 바닷가 산에 위치한 이곳이 봉수지로 알려져 있고, 지명도 조선시대 봉수지로 전해지며, 방형으로 돌을 낮게 깔아 쌓은 석축단(煙臺)과 함께 그 외곽으로 토루(필자: 방호벽)도 돌아가고 있으므로 봉수지로 인정한다. 왜냐하면 평면 방형의 석축 연대시설³⁴⁾과 3단의 석축단, 외곽의 방호용 호 등은 전형적인 연변 봉수의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포리 봉수지가 죽도(바위섬)에 인접해 있으므로 죽도산봉수로 판단된다.

그런데 삼포리 봉수지 일대에는 참호를 정비하면서 많은 기와가 노출되어 있다. 기와들은 격자문, 능형문 등이 보이고, 기와의 질과 두께, 색조 등에서 고려시대가 중심시대이다.³⁵⁾ 특히 참호 공사로 노출된 토층의 단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와들은 봉수대 석축단(연대) 및 방호용 호와 동일한 높이(level)가 아니라 봉수대

33)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高城郡 軍事遺蹟-地表調査報告書-』, 遺蹟調査報告 第10輯, 2003, 179쪽. “삼포리봉수는 인공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크게 교란된 상태이지만, 면적이 10m 내외의 정방형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 규모를 추정하게 해 준다. 면적은 1m 내외의 크기이다. 몇 년 전에 발생했던 고성 화재 때문에 1988년에 설치한 표식은 깨진 상태이다. 주변에서는 다수의 와편이 수습되고 있다. 연조 기단은 10m 내외의 정방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로는 70m 둘레의 원형으로 패여 있고, 정상부 주변의 크기는 116m이다.”

34) 동해 어달산 봉수도 발굴 결과 연대의 하단부가 방형이었다<도판 30~32>. 세종 29년 병조에서 마련한 연변봉수를 보면 연대의 형태와 규모는 방형이고 둘레에 호를 파고, 임시 건물도 설치하여 병기, 용수, 화기 등을 보관하였다(『世宗實錄』 卷150, 29년 3월 丙寅, “沿邊各處煙臺造築 高二十五尺圍七十尺 臺下四面三十尺 外掘塹深廣各十尺 皆用營造尺 又於坑塹外面設木長三尺削皮銳上植地 廣十尺臺上造假屋藏兵器及朝夕供用水火器皿等物”).

35) 육군박물관의 조사에서도 기와들을 고려시대 전기 이후에 제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高城郡 軍事遺蹟-地表調査報告書-』, 遺蹟調査報告 第10輯, 2003, 182쪽).

석축단 밑의 층에 혼입되어 있었다. 봉수대의 운용 시기와 기와의 제작 시기가 서로 다른 것이다. 기와들은 수파문기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무문 기와, 연질적색기와 등도 있어 고려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토기편도 극소수 발견하였으나 일반적인 질그릇편으로 시대 편년의 표식유물은 아니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봉수대가 통일신라시대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필자는 통일신라시대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유물을 수습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삼포리 봉수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설득력 있는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도판 3~7>.36) 이렇게 보면, 『문화유적총람』에 채록된 삼포리 봉수지의 전승 내용이 의미가 있다.

• 高城三浦里烽燧址,

女眞 靺鞨族의 侵略을 警戒하기 爲하여 築造한 것이라 전하며, 長廣 7.27m(24尺), 높이 5.45m(18尺)인 石築壇이다.³⁷⁾

위의 삼포리 봉수지에 관한 전승 내용은 봉수지의 운영 시기가 고려 전기 동여진의 침입 시기에 해당함을 시사한다. 삼포리 봉수지에서는 송지호 일대 북쪽 전면의 움직임은 물론이고, 동해 바다와 함께 죽도(섬)이 매우 가까워 죽도(섬)에서의 움직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비록 평지에 대한 상대고도가 높지 않지만, 삼포리 봉수지는 주변을 관측감시·통제하고 해안을 따라 외길로 오는 적의 침입을 차단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위치이다. 그리고 삼포리 봉수지에 참호 시설을 만들면서 석축연대 밑부분의 단면이 드러났는데, 연대 밑에는 기와편이 많이 박혀 있었으며, 그 위에 불탄

36) 이미 육군박물관은 삼포리 봉수지의 성격과 기능에 의문을 갖고, 봉수지의 토루와 기단 주변에서 발견되는 다량의 와편과 사망 관측이 용이한 입지적 조건은 둔대 또는 망루 시설이었을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위의 책, 2003, 188쪽).

3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1977, 435쪽, 高城三浦里烽燧址.

흔적이 있었다. 특히 석축연대 밑에서 상당한 두께에 걸쳐 고려시대의 기와층이 드러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고학적 층위상으로 죽도(산)봉수가 운영되는 시기의 건물 기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었던 竹島戍의 건물(예: 초소 등)을 후대에 봉수대를 만들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면서 파괴한 양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삼포리 봉수지의 석축연대 하부에서 출토되는 기와편의 시대와 함께 봉수지가 바닷가의 산에 입지한 점을 고려하면 이곳을 고려시대의 戍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간성의 죽도산봉수가 ‘竹島戍’인지는 지리지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고려사』에서 다음과 같이 竹島戍를 찾을 수 있다.

「선종 원년(1084) 2월 무술일. 동로(東路)가 금양현(지금의 강원도 통천군) 관내 관해수(觀海戍), 고성현(지금의 강원도 고성군) 관내 환가수(獐蝦戍), 한성현(필자: 지금의 강원도 간성인데, ‘杆’을 ‘杆’으로 오기함) 관내 죽도수(竹島戍)에 화재가 나 군관을 파직하고, 각 현에 임시로 도량을 열어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³⁸⁾

위의 기사는 죽도수가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삼포리 봉수지를 죽도수로 볼 수 있다. 고려 전기의 죽도수는 조선 초기 전기에 죽도(산)봉수지로 되었고, 오늘날에는 지금의 행정구역 명칭을 따라 삼포리 봉수지로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죽도(산)봉수를 죽도(바위섬)로 간주하는 기존의 견해는 오류라 하겠다. 다만 죽도수에서 일부 병력을 죽도(바위섬)로 파견 보냈을 수 있다.³⁹⁾ 이 일대가 행정·군사적 중심지로 마을이 있고, ‘戍’ 정도의

38) 『高麗史』卷五十三 志 卷第七, 五行一, 火, “宣宗元年二月戊戌東路金壤縣管內觀海戍高城縣管內獐蝦戍杆城縣管內竹島戍災責罷軍官 見任設道場于各縣 禳之.”

39) 죽도(바위섬)에 기와편들이 있으므로 육지의 죽도수의 군사 책임자가 죽도(바위섬)을 통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죽도(바위섬)가 바닷가 백사장과 매우 가까워

군부대가 주둔하였으며, 죽도에도 일부 병력을 파견한 까닭에 행정 명칭에도 죽도(바위섬)가 상징화되어 죽도면이 되었을 것이다.⁴⁰⁾ 따라서 竹島戍에서 竹島(山)烽燧로 변화하는 것은 고려 전기의 戍가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烽燧가 되는 확실한 현장 사례가 된다.

결국 간성 지역에 있는 봉수 3곳은 모두 그 위치를 확인하였으며, 고려 전기에 戍였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간성군의 경우 동여진이 출몰하던 고려 전기의 戍 3곳 모두가 조선시대 초기·전기에 烽燧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4>.

<표 4> 간성 지역의 烽燧 현황과 戍의 비정

지역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비고(현재의 지명/위치)	고려시대
간성	戍山	戍山	현내면 마차진리 봉화봉 (쑥고개 동쪽 바닷가 산)	寧波戍
	正陽戍	正陽山	거진읍 반암리 봉화산(정양산)	正陽戍
	竹島山	竹島	죽도(산)봉수(현재 삼포리봉수지)	竹島戍

나. 강릉 지역의 戍 유적

강릉 지역의 戍는 『신증동국여지승람』 古蹟條에 실려 있으므로 이미 없어진 상태이고, 그 위치도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고적조에 실린 5곳의 戍 가운데 海令戍와 沙火戍는 봉수조에 海靈山烽燧와 沙火山烽燧가 있어 명칭상 관련성이 엇보인다. 그러므로 이들 봉수지에 대한 문헌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戍와의 관련성을 찾아보겠다.

작은 초소 등을 운영할 만하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육지의 수자리는 봉수지로 변화하였고, 죽도의 파견초소는 수가 폐기될 때 함께 폐기되었거나, 봉수지로 변할 때 폐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40) 행정명칭인 ‘죽도면’은 택당 이식이 편찬한 『水城誌』가 처음이며, 『輿地圖書』에서도 죽도면으로 나온다.

먼저 沙火山烽燧가 『한국지명총람』에 고려 때 沙火戍였다고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사화산(沙火山)[사화산봉수] 【산】 사천면(沙川面) 사천진리(沙川津里) 앞 북쪽에 있는 산. 높이 35m. 고려 때 사화수(沙火戍)가 있었고, 이조 때 봉화대가 있어서, 남쪽으로 소동산(所洞山), 북쪽으로 주문산(注文山)에 응하였음.⁴¹⁾

채록 내용을 신뢰한다면, 고려 때 沙火戍가 조선시대에 와서 沙火山烽燧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화산 봉수는 그동안의 학술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었다. 이에 필자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沙火山烽燧를 처음 찾아 소개하였는데,⁴²⁾ 사천진리 북쪽의 뒷산으로 바닷가에 위치한 蛟門岩을 마주보는 나지막한 산에 위치하고 있었다<도판 8~11>.⁴³⁾ 강원도 동해안의 자연지형적 특징인 태백준령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가지능선의 해안끝 쪽 산에 烽燧가 위치한 셈이다<지도 4>. 물론 지금의 사화산봉수 자리가 사화수였는지, 아니면 가까운 주변에 사화수가 별도로 있었는데, 사화산봉수지도 함께 포함시켜 통칭하여 불렀는지 의문이 남는다. 다행히 그 답을 허균이 지은 『성소부부고』에서 찾을 수 있다.

「강릉부(江陵府)에서 30리 되는 곳에 사촌(沙村)이 있는데, 동쪽으로는

4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명주군 68쪽.

42) 홍영호,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성보(城堡) 검토(2)-戍를 중심으로-」, 『박물관지』 1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49~72쪽.

43) 사화산봉수는 지금의 사천진리 마을 서낭당 자리로 바뀌었고, 지진해일(쓰나미)을 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담자는 어른들로부터 예전에 봉화대라고 전해진다고 들었다고 하였다(대담자: 최필수(1945년생), 前이장님, 현재 삼다도 횃집 운영, 033-644-0234).

봉화대는 1970년대에 간행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에서도 ‘봉우재’라는 명칭으로 서술되고 있다(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江原道 篇),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 第8冊, 1977, 12쪽).

대해(大海)에 임했으며 북쪽으로는 오대(五臺)·청학(靑鶴)·보현(菩賢) 등 여러 산이 바라보인다. 큰 내 한 줄기가 백병산(百屏山)에서 나와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데, 이 내를 빙 둘러 거주하는 이가 상하 수십 리에 거의 수백가(家)나 되며, 모두 양쪽 언덕에 의지하여 내에 면해서 문을 내었다. 내의 동쪽 산은 북대(北臺)로부터 내려와 꾸불꾸불 연속된 것이 용처럼 생겼는데, 바닷가에서 홀연히 솟구쳐 사화산의 수자리(沙火山戍)가 되었다. 수자리 아래에는 옛날 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내가 무너질 때 늙은 교룡(蛟龍)이 그 밑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 교룡이 가정(嘉靖) 신유년(1501, 연산군7) 가을에 그 바위를 깨뜨리고 떠나는 바람에 두 동강이 나서 구멍 뚫린 것이 문과 같이 되었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교문암(蛟門巖)이라 호칭하였다.」⁴⁴⁾

위 사료에서는 沙火山戍와 함께 교문암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沙火山烽燧址가 沙火戍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사화수가 조선 초기·전기에 사화산봉수지가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해령수와 관련하여 동일한 명칭을 쓰는 해령산봉수가 주목되는데, 『한국지명총람』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해령-산(海靈山) [봉화재, 봉화봉] 【산】 화비령(火飛嶺) 줄기 곧 나룻말 서북쪽 동해(東海)가에 솟아 있는 산. 산 위에 해령사(海靈祠)가 있고, 그 서북쪽으로 30m 되는 곳에 이조 때 봉수대(烽燧臺)가 있어서, 남쪽으로 오근산(吾近山), 북쪽으로 소동산(所洞山)에 응(應)하였음.⁴⁵⁾

海靈山烽燧址는 지금의 강릉시 남쪽 강동면 안인리 군선강 하구의 남쪽 돌출부 산에 위치하는데, 봉화산으로도 불리우며 위치

44) 許筠, 『惺所覆瓿稿』卷之七〇文部四, 愛日堂記, “江陵府之三十里有沙村。東臨大海。北眺五臺, 靑鶴, 菩賢等諸山。大川一派。出百屏山而注于村中。環川而居者。上下數十里殆數百家。皆依兩岸而面川開戶。川東之山。從北臺而來。蜿蜒如龍。至海上斗起。爲沙火山戍。戍之下。舊有大石。當川之潰。老蛟伏其底焉。嘉靖辛酉秋。蛟決其石去。分兩段而銜如爲門。後人號曰蛟門。… 하략 …”

45)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2-강원편-』, 1967, 명주군 72쪽.

확인도 가능하다<지도 5 및 11>. 이곳은 조선시대에 수군포진인 安仁浦鎭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도판 12>. 해령산봉수가 ‘해령수’였다는 지명유래가 없으므로 해령수도 그 자리인지는 불분명하나, 간성군의 봉수와 수의 입지로 보건대 봉화산이 해령산이므로 동일한 곳으로 볼 수 있다. 海靈山烽燧의 입지도 戍의 입지와 동일하므로 가능성이 높다. 海令戍의 위치가 이곳이라면 ‘戍→봉수지(浦鎭)’로의 변화가 일치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이와 같이 강릉 지역의 戍 5곳 가운데 2곳의 戍를 추정하였다. 비록 2곳의 戍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 2곳의 戍를 찾음으로써 나머지 3곳도 추적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표 5>.

<표 5> 강릉 지역의 烽燧 현황과 戍의 비정

지역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비고(현재의 지명/위치)	고려시대
강릉	注乙文	注文山	주문진리	
	沙火	沙火山	사천진리	沙火戍
		海靈山	안인진 해령산	海令戍
	所伊洞	所同山	포남동	
	吾斤	吾斤山	강동면 심곡리	
	於乙達	於達山	목호 어달동	

4. 東界 지역 戍의 입지와 성격

고려시대에 州鎭城은 지역 방어를 위한 거점으로 보조적인 군사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州鎭城과 함께 군사적인 주요 지점에는 일종의 감시초소 역할을 하는 戍가 요소마다 설치되었다. 이처럼 고려는 州鎭城을 중핵으로 하여 그 주변에 戍를 배치하는 형태로 일차적인 군사방어체제를 조직하였다.⁴⁶⁾

46) 宋容德, 「高麗前期 國境地域의 州鎭城編制」, 『韓國史論』51, 서울대 인문대학 국

그런데 현재 兩界 지역의 대부분이 북한 지역인 까닭에 戍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東界 지역의 경우도 州 鎭城과 戍의 배치 분포에 있어 그 입지와 특징을 규명하려는 본격적인 연구가 그동안 없었으므로 東界 지역 戍의 실제, 즉 입지적 조건과 성격을 알 수 없었다. 이에 필자는 『고려사』 사료, 지리지, 고지도, 개인 문집, 지명유래, 전설 등에 나오는 戍를 분석하여 戍의 성격과 입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도 하였다.

특히 지리지에서 烽燧와 戍가 관련성을 보이는 간성 지역의 봉수와 수를 조사 연구하였고, 강릉 지역의 봉수와 수의 관계도 추적하여 방증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지리지의 봉수조와 고지도인 「동여도」를 통해 간성군의 정양산봉수가 正陽戍이며, 수산봉수가 寧波戍라고 밝혔다. 죽도(산)봉수는 죽도섬(바위섬)으로 보는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육지의 竹島山에 烽臺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 古地圖를 찾아 지금의 삼포리 봉수지가 죽도(산)봉수임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에 참호를 개설하면서 드러난 토층의 단면에서 석축단(煙臺) 하부에 매우 많은 기와들이 혼입되어 있으므로 죽도(산)봉수 이전에도 이곳이 운영되었는데, 기와들이 고려시대가 중심시대이므로, 『고려사』 五行志(火)에 기록된 竹島戍로 보았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전기 간성군의 烽燧 3곳 모두 고려 전기의 戍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허균이 지은 『성소부부고』에서 沙火戍를 찾아내어 강릉의 沙火山烽燧도 사화수와 위치가 같음을 확인하였다. 강릉의 海令戍도 海靈山烽燧와 연결된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동해안의 다른 지역도 봉수지의 상당수가 고려 전기에 戍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 글에서 다룬 간성의 竹島戍-竹

島(山)烽燧, 강릉의 沙火戍-沙火山烽燧 사료는 戍와 烽燧의 대응 관계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간성의 영파수-수산봉수, 정양수-정양산봉수, 강릉의 해령수-해령산봉수 등도 戍와 烽燧가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간성과 강릉의 사례로 보건대 烽燧와 戍가 일치하는 곳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戍로 추정되는 마차진리 봉화산(戍山烽燧, 古寧波戍), 정양산 봉화산(正陽戍烽燧, 正陽戍), 사화산 봉수(沙火戍), 해령산 봉수(海令戍)는 모두 바닷가의 곳, 포구에 연하여 바다쪽으로 돌출한 산 정상부에 입지하거나, 바다에 연하여 적당한 높이의 산 정상부 일대에 입지하여 바다를 향한 전망이 좋다(지도 1~5). 이렇게 보면 「동여도」에 표기된 戍의 비정은 신뢰할 만하다. 동여진 해적의 침입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목적에서 이러한 입지에 戍가 설치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말~조선초기에 정비되는 沿邊烽燧도 그 목적과 기능이 戍와 유사하므로 戍와 동일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다. 또한 고려 전기의 戍는 고려말기~조선초기에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여 설치되는 營鎮戍所⁴⁷⁾로 일부 활용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戍는 소규모 적에 대한 방어적인 기능과 주둔군의 모습도 사료에서 보이는데, 이 점에서 戍는 烽燧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戍가 烽燧條가 아닌 關防條에 수록된 이유도 방어를 위해 駐屯

47) 이 시기 營鎮戍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車勇杰, 「高麗末 倭寇防守策으로서의 鎮戍와 築城」, 『史學研究』38, 韓國史學會, 1984, 129~157쪽.

최종석, 「고려말기 지역방어체제와 그 시대성」, 『역사와 현실』85, 한국역사연구회, 2012, 305~348쪽.

그런데 고려전기의 戍와 고려말기의 戍는 차이가 있다. 고려 전기의 수는 양계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본성인 주진성과 연계된 보조적 방어시설이고, 고려말기의 수는 연해지역에 설치되어 주변 성곽과 연계되지 않은 채 그 자체로만 존립하였다(최종석, 위논문, 2012, 312쪽).

軍이 존재하고, 城柵과 城堡가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⁴⁸⁾ 시간적으로도 烽燧는 戍보다 뒤의 시기에 설치되므로 戍와 烽燧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는 없다.⁴⁹⁾ 하지만 동해안의 경우 바다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감시한다는 점에서 戍나 烽燧는 그 입지가 서로 통할 수 있다.⁵⁰⁾ 이러한 입지의 특성 때문에 戍 가운데 병선이 정박 가능한 일부 戍는 후대에 왜구를 막기 위한 水軍浦鎮(萬戶鎮)이 되었고,⁵¹⁾ 일부의 戍는 감제와 봉화를 하기에 유리한 까닭에 烽燧體制에 편입되었다. 이와 반대로 동해안에서 (浦)鎮을 중심으로 하는 水軍 위주의 방어체제와 沿邊烽燧體制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戍들은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48) 『신증동국여지승람』의 安邊都護府에는 철원수(鐵垣戍)가 “본부 동쪽 파천사(派川社) 바다 어구에 조그마한 석성(石城)이 있는데 세칭 수성(戍城)이라 한다. 강원도 흡곡현(歙谷縣) 지경에 있다.”라고 서술되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제49권 安邊都護府, 古蹟條). 이 기사로 보아 성보 형태의 시설이 있었던 戍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료 A-4에도 守將 河周呂가 병력을 이끌고 성을 나왔으므로 [出城] 성보시설이 있었을 것이다.

49) 봉수체제는 고려시대 의종 3년(1149)에 서북면 병마사 조진약의 상주에 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되 평상시에는 한 번씩 올리고 2급에는 2거, 3급에는 3거, 4급에는 4거씩 올렸다. 봉수대에는 防丁2명, 白丁 20명을 두고 각각 평전 1결을 주도록 하였다(『高麗史』 卷八十一 志 卷第三十五 兵一 兵制 五軍條, 西北面兵馬使 曹晉若奏, “定烽獲式, 平時, 夜火晝烟各一, 二急二, 三急三, 四急四, 每所防丁二·白丁二十人, 各例給平田一結.”) 주둔군의 표현이 없고, 2개조로 운영된다고 보면, 방어를 위해 군사가 주둔한 모습은 아니다.

50) 고려 말~조선 초에 萬戶가 포진-봉화를 모두 관리하고, 동해시 어달동 봉화와 망상동 심곡리 산성 간에 연락체계가 있었다는 전설도 참고가 된다.

51) 그러한 사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萬戶가 책임자로 있는 戍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戍가 營鎮城이 되는 사례도 있어 방증이 된다. 이 점에서 삼척의 오화리산성도 필자의 주장(홍영호, 「오화리산성의 고고학적 검토에 대한 토론」, 『寥田山城 學術세미나』, 삼척문화원, 2002, 33~48쪽)처럼 桐津戍였다가 三陟浦鎮으로 되었을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다.

5. 맺음말

이 글의 목적은 고려시대 동해안 지역인 東界의 관방 유적인 戍를 찾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자는 사료, 지리지, 문집, 고지도 등 문헌 자료에서 戍에 관한 단서를 추적하였고, 현장 조사를 통해 戍의 실체를 규명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리하여 문헌 자료에서는 주요 지리지의 烽燧條에서 東界 지역의 戍가 관련이 있음을 간취하였고, 채록 자료도 검토하여 戍로 볼 수 있는 유적을 찾아내었으며, 고지도인 「東輿圖」 등에 표기된 戍의 입지를 참고한 후, 戍로 추정되는 유적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戍로 볼 수 있는 유적들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고, 東界 지역 戍의 입지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파악된 東界 지역 戍의 위치와 입지로 보아 그 성격과 기능은 바다로부터 쳐들어오는 소규모 적에 대한 감사통제방어를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戍의 분포가 후대에 만들어지는 烽燧址와 일치하는 곳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입지는 사료에서 戍가 東女眞의 침입과 관련되는 관방 유적임을 말해주듯이 바닷가 연변의 산이나 꽃과 같은 지점에 위치하여 바다를 조망하기에 유리하였고, 소규모의 군대가 주둔하여 방어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었다.

고려 전기의 戍는 이후 고려후기·말기~조선초기를 거쳐 왜구를 막기 위하여 水軍浦鎮체제가 확립되면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좋은 포구를 가진 戍의 경우 水軍浦鎮으로 발전하였고, 일부는 동해안의 沿邊烽燧체제에 포함되었으며, 그 속에 포함되지 못한 戍들은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투고일: 2016.4.2, 심사수정일: 2016.5.21, 게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 동계(東界), 수(戍), 봉수(烽燧), 강릉(江陵), 간성(杆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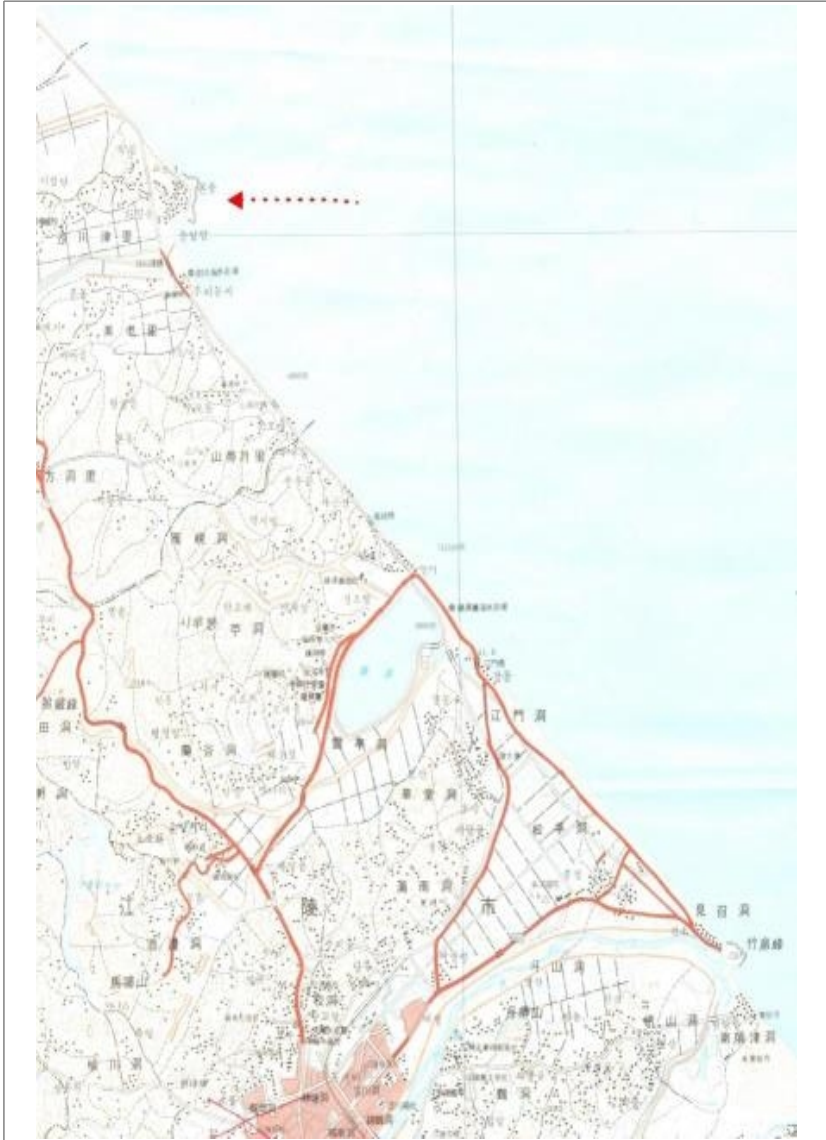
〈지도 1〉
고성 마차진리 봉수지(成山烽燧, 寧波戍)
도엽번호 NJ52-6-10 고성, 1:50,000
(1996년 8월 인쇄)



〈지도 2〉
고성 정양산 봉수지(正陽戍烽燧)
도엽번호 NJ52-6-17 간성, 1:50,000
(1997년 6월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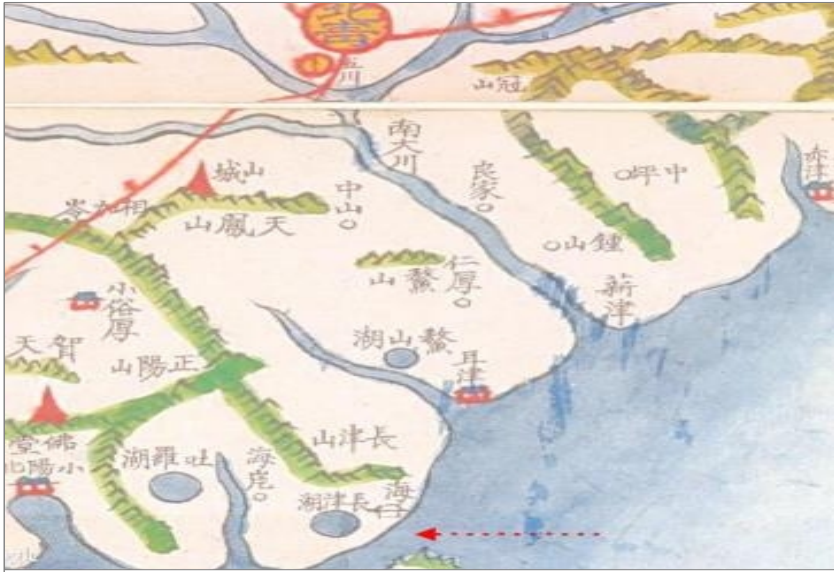
〈지도 3〉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와 죽도의 위치 - 봉수동 지명 있음.
육사박물관, 2003, 127쪽 도면에 추가: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지](⇒), 죽도(○)]



〈지도 4〉
강릉 사화산봉수(沙火戍) 도엽번호 NJ52-10-05 강릉, 1:50,000
(1990년 6월 인쇄)



〈지도 5〉
강릉 해령산봉수(海令戍) 도엽번호 N52-10-12 규정, 1:50,000
(1990년 6월 인쇄)



〈지도 6〉
「東輿圖」의 長津湖의 위치(北靑의 長津浦戍)로 추정됨.



〈지도 7〉
「東輿圖」의 香灯古戍(香灯戍)(上), 壓戎串古戍(壓戎戍)(中), 鐵垣古戍(鐵垣戍)(下)



〈지도 8〉
「東輿圖」의 靈津申(靈津山烽燧)(上), 浦口山(浦口山烽燧)(下)



〈지도 9〉
「東輿圖」의 戍山(古寧波戍)[戍山烽燧(마차진리봉수, 寧波戍)](上)
「東輿圖」의 正陽山(正陽戍烽燧)(下)



〈지도 10〉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와 죽도산 위치도 - 육지의 산에 표시됨.

- * 삼포리 봉수지[竹島(山)烽燧](允), 古烽臺距邑二十里南應襄陽德山山名竹島山.
 - * 정양산 봉수지[正陽戌烽燧](允), 古烽臺距邑二十里山名正陽山.
 - * 마차진리 봉수[戍山烽燧]는 표기되어 있지 않음.
- (서울대학교 규장각(편), 2000, 『조선후기 지방 지도(강원도·함경도편)』, 1872년경).



〈지도 11〉

「東輿圖」의 海靈山烽燧와 安仁浦鎮(海令戌)



〈도판 1〉
고성(간성) 정양산봉수지(正陽戍烽燧)
원경(가운데 능선 일대임)



〈도판 2〉
고성 戍山봉수(寧波戍) 원경
(왼쪽은 동해, 오른쪽 고개가 쇄고개임)



〈도판 3〉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의
석축단(연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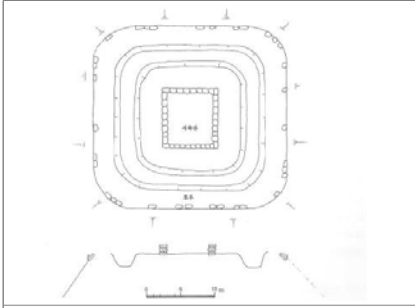
〈도판 4〉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의
석축단(연대시설) 하부 기와흔입층



〈도판 5〉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의 기와편
노출 상태



〈도판 6〉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 수습 기와편



〈도판 7〉
삼포리 봉수지[죽도(산)봉수] 실측도 추정
복원도(지현병, 1995, 『高城郡의
關防遺蹟』, 『高城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陵大學校 博物館 學術叢書 10冊, 125쪽)



〈도판 8〉
강릉 사화산봉수지(沙火戍) 근경



〈도판 9〉
강릉 사화산봉수지(沙火戍)와 서낭당



〈도판 10〉
강릉 사화산봉수지(沙火戍)에서 본 동남쪽 바다



〈도판 11〉
강릉 사화산봉수지(沙火戍) 앞 바닷가의 교문암



〈도판 12〉
강릉 해령산봉수지(海令戍) 원경

<ABSTRACT>

A study on the frontline guard post[Soo, 戍] in Eastern frontier province[Donggye, 東界], Goryeo Dynasty

Hong, Young-Ho

Eastern Seaside of Gangwon province is organized as Eastern frontier province[東界] as military zones in the Goryeo Dynasty. Therefore many military sites exist, and the frontline guard post, called Soo[戍] are distributed. But the location and function of these sites are not clear. This article is revealing location and function of these sites.

I conducted a extensive literature search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verified by field survey. As a result, these sites are defined as a frontline guard post and played a role of function in monitoring and preventing the enemy[東女眞, Jurchen pirates] invading through the sea in early Goryeo Dynasty. Therefore, these site is located on the promontory and mountain of the beach.

Some of these sites became reused as a signal fire station to protect its area from the invasion of Japanese Pirates[倭寇] from late Goryeo Dynasty to early Joseon Dynasty.

Key words : Donggye[Eastern frontier province], Soo[frontline guard post], Eastern Jurchan pirates, signal fire station, Gangreung, Ganseong

